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정단을 사열한 뒤 은평초등학교 어린이 환영단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중국어 조크에 참석자들 웃음

한·중 정상회담 '화기애애' 중국인 선호 빨간 재킷 차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는 등 곳곳에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시 주석 국빈방한 공식환영식에 열린 빨간색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다.

빨간색은 중국에서 권력과 명예, 부, 길 함 등을 상징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기도 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작년에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환대

를 해주셨는데 1년만에 주석님께서 방문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평리위안(彭麗媛) 여사께서도 함께 오시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을 반긴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 언론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주석님을 '친민국민(親民樂民)'이라는, '국민과 가깝고 국민과 즐겁게'라는 말로 묘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때 시 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 개인의 시간은 또 어디로 갔나, '스젠더우취나얼러(時間都去那兒了)'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업무에 열중하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중국어를 사용해 시 주석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웃음을 터트렸다.

'스젠더우취나얼러'는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끈 영화 '사인정제(私人訂製)'의 삽입곡 제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석님의 그런 열

정과 헌신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성공하고 중국의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시 주석을 지켜세웠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주석께서 '포부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다닐 수 있고,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양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 주석은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에서 저의 방문에 대해 따뜻한 인내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느낀다"며 "또 방문 전에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두 정상간 단독정상회담이 애초 예정시간 보다 50여분 늦어지면서 확대정상회담 등 후속일정이 순연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전남 최하위

광역의원 1.9%, 기초의원은 5.7% 불과

6·4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광주는 전국 최상위를 차지한 반면 전남은 최하위 수준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3일 전남여성플라자에 따르면 6·4지방선거 광주 지역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 비율은 21.1%(전체 19명 중 4명)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이 15.8%(전체 19명 중 3명)로 2위를 나타냈다.

반면 전남은 1.9%(전체 52명 중 1명)로 단 한 명의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한 충남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 여성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전체 58명 중 5명으로 8.6%다.

전남의 지역구 광역의원 여성 당선자는 전국 평균(8.2%) 보다 6.3% 포인트가 낮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당선자도 전국 평균(14.3%) 보다 5.7% 포인트가 낮다.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당선자 비율의 경

우 광주는 23.7%(전체 59명 중 14명)로 23.8%(전체 366명 중 87명)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전남은 5.7%(전체 211명 중 12명)로 전국 평균(14.6%) 보다 8.9%가 낮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당선자도 전국 평균(25.3%) 보다 7.2%가 낮은 18.1%(44명)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전남 지역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22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만 배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문상필·조영표 '2파전'

후보등록 마감 ... 8일 선출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상필(북구 3)의원과 조영표 의원(남구1)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애초 김영남(서구 3)·이은방(북구 6)·조오섭(북구 2) 의원 등 재선 의원 3명이 더 후보로 거론됐지만,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2명으로 압축됐다. 문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6대 의회 당시 '조선 소장파'로 분류됐던 문상필 의원과 김영남·조오섭 의원은 단일화 논의 끝에 문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6대 의회에서 '6인회'로 분류됐던 조영표 의원과 이은방 의원도 단일화를 통해 조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들은 의장 선거일인 오는 8일까지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7대 의회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고, 조 의원은 '시민의회의 새로운 역사 시대정신'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문 의원은 "“거수기의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긴밀한 상호협력이라는 양 수레바퀴의 튼

튼한 축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문 의원의 의회 개혁 방안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강화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강화 ▲의정활동 기반 강화 ▲특위 통한 광주미래비전 제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소통과 화합으로 시의회 운영 등이다.

조 의원은 "의장의 역할은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의회 의장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살려 7대 시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대정신 실천 과제로 ▲소통과 참여-시민참여정치 확립 ▲화합과 경청-대표자보다 대변인 ▲복지와 안락-정책·입법·예산 전문가 ▲견제와 감시-신뢰받는 시민의회를 제시했다.

그동안 의장 선거 결과를 감안하면, 1~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조

		
이름	문상필(47)	조영표(52)
지역구	북구 3선거구	남구 1선거구
경력	·전국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6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남구의회 의장 ·전6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6대 의회 조례발의 현황	단독발의 9건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8건	단독발의 2건 대표발의 3건 공동발의 9건

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후보 간 과열양상을 보이면 서 의장 선거를 통해 벌써부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의장 선거를 통해 '자리 나눠먹기' 보다는 시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의정활동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의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는 첫 본회의가 열리는 8일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시·군·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북구 심재섭, 남구 김점기
동구 이선순, 함평 정수길
장흥 광태수, 보성 김판선
고흥 장세선, 여수 박정채



광주·전남 시·군·구의회(이하 기초의회)가 일제히 개원식을 갖고 전반기 의장·부의장을 잇따라 선출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3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제7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3선의 심재섭(나 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조석호(마 선거구)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함평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정수길(나 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 이재영(나 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7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재선의 김점기(나 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 재선인 조기주(라 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광주 동구의회도 이날 첫 임시회를 갖고 전반기 의장에 이선순(나 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박대현(나 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장흥군의회도 2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에 재선인 광태수(나 선거구)의원을, 부의장에는 조선인 유상호(가 선거구) 의원을 선출했으며, 보성군의회도 이날 재선인 김판선(나 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고, 부의장에는 김재철(가 선거구) 의원이 선출됐다.

고흥군의회도 이날 제7대 전반기 의장에 장세선(다 선거구)의원을, 부의장에는 김의규(라 선거구) 의원을 선출했

다.

여수시의회는 1일 임시회를 개최해 제6대 전반기 의장에 5선의 박정채(아 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는 김순빈(바 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 선임 의장은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서완석 의원과 동률을 이뤘으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의 연장자 우선순위에 따라 의장에 당선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즉시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p>■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p>	<p>■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p> <p>■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p>	<p>■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p> <p>■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p>
--	--	--